https://namu.sdm.go.kr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소식지

2026 봄호 **제88호**

Nature and Natural History

자연과 자연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홈페이지

발행인 | 서대문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편집 | 학예연구팀 심예진 발행일 | 2026. 3. 17.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32길 51 전화 | (02)330-8899 팩스 | (02)330-1736

02 | **전시물 소개** - 달, 공룡 시대의 목격자
04 | **전문가 기고**
- 왜 우리는 토종씨앗을 보존해야 하는가?
08 | **특별전시**
09 | **주민참여전시**
10 | **교육**
12 | **어린이코너**
13 | **박물관 행사**
14 | **새소식**
16 | **관람안내**

식물이 건네준 비노

비노 -비누의 옛 순우리말



서대문자연사박물관
SEODAEMUN MUSEUM OF NATURAL HISTORY

〈2026년 제1차 주민참여전시〉

01 전시물 소개

달, 공룡 시대의 목격자

정민섭 (달 과학자, 한국천문연구원 선임연구원)

박물관에 전시된 은빛 달 모형을 가만히 응시하다 보면, 수억 년 전 지구의 주인이었던 공룡들이 보았을 밤하늘의 풍경을 상상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보이는 달은 정적이고 평온한 모습이지만, 천문학의 시선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마주하는 중생대의 달은 지금보다 훨씬 역동적이고 강렬한 존재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약 2억 5천만년 전부터 6천만 년 전까지 이어진 중생대라는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달은 지구 생태계의 조율사이자 가장 가까운 동반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당시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입니다. 달은 현재 매년 약 3.8센티미터씩 지구에서 멀어지고 있으며, 이를 역산해 보면 공룡 시대의 달은 지금보다 약 1만킬로미터 가까이 지구에 더 근접해 있었습니다. 천문학에서 중력에 의한 기조력은 거리의 세제곱에 반비례하여 작용합니다. 따라서 약 2.5% 더 가까웠던 중생대 초기에는 지구가 느끼는 달의 인력이 지금보다 약 10% 가까이 더 강력했습니다. 이러한 중력의 차이는 지구의 바다에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당시의 밀물과 썰물은 지금보다 훨씬 높은 낙차를 보였으며, 거대한 조석류가 해안선을 휩쓸며 광활한 갯벌과 풍요로운 천해 생태계를 형성했습니다. 해안가를 거닐던 수많은 공룡과 익룡들은 지금보다 훨씬 역동적으로 출렁이던 바다의 리듬에 맞춰 생존의 방식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높은 파도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겨진 풍부한 먹잇감들은 중생대 해양 파충류들이 번성할 수 있는 생태적 토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구의 시간 역시 달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아주 조금씩 변해왔습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는 달이 일으키는 조석 마찰로 인해 100년마다 약 2밀리초(0.002초)라는 찰나의 시간만큼 아주 천천히 느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억 5천만년이라는 거대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중생대 지구의 자전 속도는 지금보다 훨씬 빨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구가 더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기에 공룡들이 살았던 시대의 하루는 지금보다 약 1시간 정도 짧은 23시간에 불과했습니다. 즉, 공룡들은 우리보다 조금 더 빠른 템포의 하루를 살았으며,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약 380번 이상의 밤과 낮을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짧은 일주기는 당시 생명체들의 생체 리듬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낮과 밤의 전환이 빨랐던 만큼 육상 생태계의 활동 주기도 그에 맞춰 최적화되었을 것이며, 밤하늘에서 지금보다 훨씬 밝게 빛났을 거대한 보름달은 야행성 수각류 공룡들의 시각 진화에 결정적인 환경을 제공했을 것입니다. 인공 조명이 전혀 없던 중생대 하늘을 가득 채웠을 밝은 달빛은 중생대 숲의 밤을 지배하는 유일한 등불이었습니다.

또한 달은 지구 자전축을 안정시켜 공룡들에게 수천만년의 평화를 제공했습니다. 지구의 자전축은 약 23.5도로 기울어져 계절의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이 기울기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달의 중력이 지구를 붙잡아주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달이라는 중력 앵커가 없었다면 지구의 자전축은 불규칙하게 요동쳤을 것이며,

이는 생명체가 적응하기 힘든 극단적인 기후 변화를 초래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룡이 약 1억 8천만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구를 제패할 수 있었던 것은, 달의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공룡 시대의 시작이 천문학적인 시간 단위로 볼 때 우리 인류의 시대와 절묘하게 맞물려 있다는 점입니다. 태양계는 우리은하 중심을 축으로 공전하고 있으며, 한 바퀴를 완전히 도는 데는 약 2억 5천만년이 걸립니다. 이를 1은하년(Galactic Year)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공룡이 지구상에 처음 등장했던 트라이아스기 초기가 바로 태양계가 우리은하를 한 바퀴 돌기 전, 현재 우리가 위치한 이 위치와 거의 같은 곳을 지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태양계가 우리은하라는 거대한 원을 그리며 한 바퀴 항해하여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동안, 지구에서는 공룡의 탄생과 번성, 그리고 멸종을 거쳐 비로소 인류의 문명이 꽃을 피운 것입니다. 인류의 시대는 공룡이 첫 발을 내디뎠던 그 지점에서 정확히 1은하년이 지난 후 새롭게 시작된 셈입니다.

이제 인류라는 종은 우리은하의 새로운 한 바퀴를 막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다시 2억 5천만년이 흘러 태양계가 다시 이 지점으로 돌아왔을 때, 지구와 달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상상해 보는 것은 매우 경이로운 일입니다. 그때가 되면 달은 지구에서 지금보다 약 9,500킬로미터 더 멀어져 있을 것이고, 지구의 하루는 조금 더 느려져 있을 것입니다. 인류가 이 거대한 우주적 순환의 다음 바퀴에서도 생존하여 다시 이 자리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을지, 혹은 공룡처럼 달의 표면에 새로운 기록만을 남긴 채 사라져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저 달이 과거 공룡의 시대를 지켰던 것처럼, 앞으로 펼쳐질 수십억년의 시간 속에서도 변함없이 지구의 곁을 지키며 우주의 역사를 기록해 나갈 것이라는 점입니다. 전시된 달 모형을 통해 2억 5천만년 전의 과거와 저 먼 미래의 우주를 동시에 조망하며, 지구가 걸어온 장엄한 여정을 깊이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필자 소개

정민섭 (달 과학자, 한국천문연구원 선임연구원)

충북대학교 천문우주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 우주탐사학과에서 우리나라 첫번째로 달 과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천문연구원에서 다누리에 탑재된 광시야 편광 카메라 개발에 참여했고, 광시야 편광카메라 연구책임자, 아르테미스 계획, 달 착륙선 탑재체 개발, 화성 탐사임무, 소행성 탐사임무에 참여 했으며, 『나는 달로 출근한다』를 집필하였다.

02 전문가 기고

왜 우리는 토종씨앗을 보존해야 하는가? 자연사박물관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이유

변현단 (토종씨드림 대표)

1. 수박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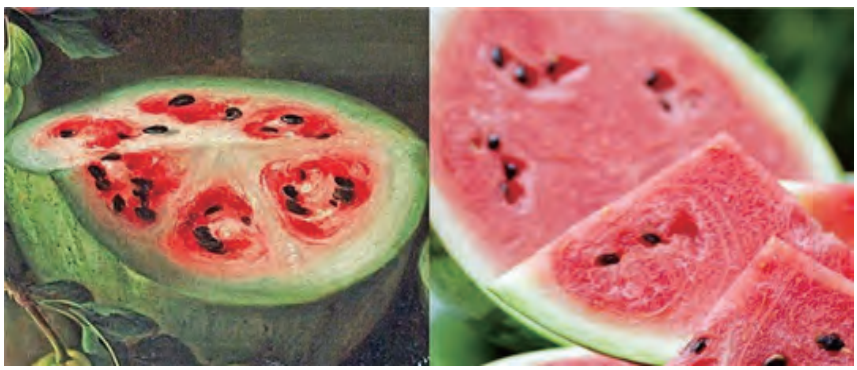


▲ 오천원권에 있는 신사임당이 그린 수박 그림

오천원 짜리 지폐 뒷면에 신사임당이 그린 수박 그림이 있다. 지금 먹는 수박보다 작은 수박이다. 복수박 정도의 크기랄까. 지금 마트에서 사서 먹는 수박은 '가시박'을 접목해서 크기를 몇 배로 키운 것이다. 약 500년 전, 조선시대 중기에 살았던 신사임당의 그림을 통해 우리 조상은 어떤 모양의 수박을 먹었는지 알 수 있다. 이후 육종 기술의 발달에 따라 지금의 수박을 먹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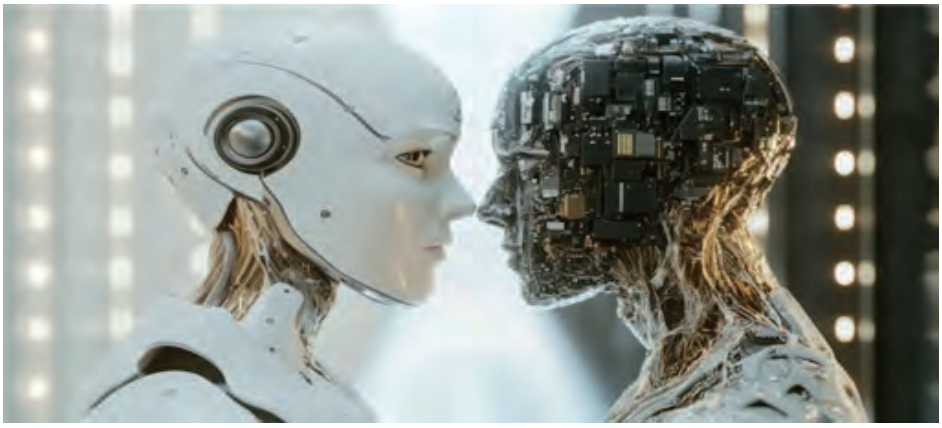
그렇다면 수박은 원래 어디서 온 것일까? 수박은 '물이 많은 박'의 의미이다. 중앙아시아로부터 전래된 수박은 고려시대 몽골에서 들여왔는데 그때는 서과(西瓜), 물이 많다고 수과(水瓜)라고 불렀다. 이후 호피 무늬가 없는 무등산 수박이 들어오면서 박을 닮았다고 하여 수박이라고 명명되었다. 박은 박나물로도 먹고 바가지를 만드는 데 사용한 것으로 기원전부터 들어와 재배되고 있었다. 어찌 되었든 물이 많은 박이 들어와서 수박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럼 태초에 수박은 어디서 온 것일까? 야생 수박은 원래 아프리카 칼라하리 사막에서 기원한다. 사막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물이다. 사막에서 물이 많았던 작은 열매를 길 가던 사람들이 먹었으며 물이 많은 작은 열매를 자신의 밭으로 가지고 와서 육종한 것이 수박이며 이는 아프리카를 거쳐서 전 세계에 퍼져 나갔다.



▲ 태초의 수박(야생수박)과 현대의 개량된 수박

2. 자연의 역사는 진화의 역사이며 인간 생활과 밀접하다. 특히 인간은 기후와 환경에 적응하는 역사이다. 전 세계 사람들의 피부 색깔과 얼굴 모양, 체격 등이 다양한 것은 다양한 기후환경 변화에 음식과 신체가 적응된 결과물이다. 최근의 열대기후는 우리 신체에 영향을 끼친다. 아열대 기후에 사는 필리핀 민족처럼 코가 낮고 콧구멍이 크고, 거무스레한 피부에 키가 작은 사람들은 장기간의 폭염과 열대야에서 생존을 위한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신체적 특징을 가진다. 하얀 피부와 높은 코는 대체로 추운 북극 지역의 신체적 조건이다. 따라서 장기간 기후와 환경의 변화는 사람의 신체를 변화시켜 왔지만, 현대문명의 발달은 이러한 변화를 더디거나 아예 무시하는 경우까지도 발생한다. 왜냐하면 자연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은 인위적인 환경의 영향이 더 크기 때문이다. 사실 산업사회 이래로 물질문명이 극에 달할수록 자연의 진화와 비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에서 사는 한, 지구의 자연사를 비켜나갈 수는 없다. 특히 곧 도래하는 로봇과 AI시대는 SF영화처럼 지구 문명의 새로운 시대가 기다리고 있다. 사람과 동물의 진화는 식물 씨앗의 진화와 무관하지 않은 것처럼 자연생태계의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 것이다. 왜냐하면 자연생태계의 동물과 식물은 인간 음식의 주요한 에너지이므로 자연의 역사처럼 씨앗의 진화는 인간 문명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 곧 도래할 AI 시대를 시각화한 이미지

3. 예부터 '굶어 죽어도 씨앗은 베고 죽는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씨앗은 인간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다. 지금은 종자회사를 통해 씨앗을 사서 농사를 짓고 먹는다. 농부가 씨앗을 받지 않아도 종자회사로부터 얼마든지 살 수 있기에 현대 농부들은 씨앗을 받는 법을 모르고 씨앗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한다. 농업계에서는 1980년 이후부터 씨앗을 받지 않는 농사를 대부분 해오고 있다. 국가기관인 국립농업유전자원센터는 1985년까지 재래종 5만종을 수집 보관하였을 뿐 이후에는 민간단체인 토종씨드림의 씨앗 발굴에 의존해오고 있다. 민간단체인 토종씨드림은 재래종 보전을 위해 2008년에 설립한 한국 최초의 민간단체로 토종씨앗을 발굴하고 씨앗과 함께 전통적 지혜를 보급하는 역할을 해왔다. 주로 음식으로 먹는 작물을 중심으로 씨앗을 수집해왔으며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1만점 이상을 수집해왔고, 수집 종자에서 수집지역이 다를 뿐 형태나 성질이 동일하다고 여기는 씨앗을 제외한다면 약 1천점 정도가 된다. 특히 한국이 원산지인 콩,팥이 제일 많이 수집되고 재래종인 들깨,

참깨가 고령농가에서 재배되고 있다. 재래종이 육종 씨앗보다 생산량이 떨어질 수 있지만 '맛'으로는 월등하기에 자식들에게도 맛이 전달되어 80년대 성장기에 있던 사람들이 어린시절 시골 음식에 대한 풍미와 향수가 몸에 기억되어 고령농가를 통해 근근히 이어져왔다. 그러니까 토종씨드림은 자식들이 농사를 짓지 않으므로 고령의 부모들이 죽으면 재래종 씨앗이 동시에 사라지므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라져가는 재래종 씨앗을 분양받아서 증식, 연구하여 귀농 귀촌 또는 재래종 씨앗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보급하는 매개 역할을 하는 농부들이다. 씨앗을 이어나가는 중요한 연결고리로서 잊어버린 토종씨앗의 지혜를 상기시켜 보존하게 하는 역할이다. 이것은 식량의 지속성에도 중요한 고리로서 '씨앗'이기도 하다. 토종은 이 땅의 기후와 토양에 잘 적응된 종자이기 때문이며, 식량의 자급은 곧 종자의 자급을 의미하기도 한다.



▲ 토종씨앗을 수집하는 과정

4. 기업과 국가가 올인하는 AI문명은 10년 안에 생활 속에서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2001년 핸드폰이 상용화되고 2010년 스마트폰이 출시되었다. 그리고 15년이 지난 지금 인공지능 폰이 출시되었다. 그간 정보획득과 일상의 관계는 대체로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진다. 스마트폰은 농업의 환경과 유통의 환경을 바꾸었고 사람들의 관계를 바꾸었다. 지하철을 오가면 그들의 몸처럼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은 가족보다 더 귀중한 존재가 되었다. 내가 어린 시절 봤던 영화의 AI와 로봇에 대한 미래사회는 지금부터 실현되고 있다. 농업은 어떠할까? 씨앗은 어떠할까? 과거 역사에 의하면 문명이 고도화되면 리셋(reset)이 된다고 하였다. 고대문명의 흔적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리셋이 되어도 씨앗은 남을까? 지구의 기후변화에 따른 판지각 변동과 자본문명의 고도화는 어떤 양태로 문명 단계를 가져올까?

지구만의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듄'이라는 영화처럼 지구와 태양계의 거대 변화로 나아갈 것인가? 어떤 항성에 살던 한 톨의 씨앗은 분명 중요할 것이다. 최소한 로봇이 아니고 인간이라면,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고 인간세계가 소규모로 유지되든 '음식의 씨앗'은 유지되어야 하지 않은가? 씨앗과 자연은 축소될 번한 미래에 우리는 박물관에서 지금 보는 씨앗과 음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삶으로 박제되어 박물관에 보존하는 이유는 무

엇일까? 박물관은 자연과 인간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인류의 멸종'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한 톨의 재래종 씨앗 하나는 바로 인류의 씨앗과 직결된다는 것을. 이것이 박물관이 씨앗을 나누는 이유이다.



▲ 토종씨앗으로 짓는 밥



▲ 산수박을 들고 있는 저자 변현단

필자 소개

변현단 (토종씨드림 대표)

전남 곡성에서 토종 씨앗으로 자연농을 하는 농부이자 '토종씨드림' 대표. 자유로운 삶을 위해 귀농했고, 경기도 시흥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태적 자립을 도모하는 '연두공동체'를 운영했다. 2011년 곡성 산골로 터를 옮기고, 삶에서 얻은 지혜를 글-씨와 말-씨로 옮기고 있다. 그동안 쓴 책으로 『연두, 도시를 경작하다 사람을 경작하다』(2009 문체부 우수교양도서), 『숲과 들을 접시에 담다: 약이 되는 잡초음식』(2010 문체부 우수교양도서), 『소박한 미래』(2011 문체부 우수교양도서), 『자립인간』(2013), 시문집 『색부의 노래』(2015), 『토종농사는 이렇게』(2018년 세종도서 우수교양도서), 『화성에서 만난 씨앗과 지혜로운 농부들』(2019년 세종도서 우수교양도서), (2020), 『씨앗, 깊게 심은 미래』(2022), 『토종씨앗 토종농사』(2022),가 『토종씨앗 토종음식』(2026)이 있다.

03 특별전시



2026년 제1차 특별전시

《메리! 쿠살낭》

- **기　　간** : 2025. 12. 23.(화) ~ 2026. 4. 26.(일)
- **장　　소** : 1층 특별전시장

전시설명

해발 1,400~1,900m의 아고산대는 낮은 기온과 강풍, 많은 강수량이 반복되는 혹독한 환경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사계절 푸른 잎을 지켜온 나무가 바로 구상나무입니다. 구상나무는 한반도에서만 자라는 고유종으로, 국내 자생지가 사라질 경우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구상나무가 어떤 진화의 과정을 거쳐 오늘날까지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마주한 기후변화 속에서 왜 절멸의 위기에놓이게되었는지를살펴보고자합니다.구상나무의과거와 현재를 이해하고, 앞으로 우리가 지켜가야 할 미래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쿠살낭'은 구상나무 잎 모양이 성게의 뾰족하고 단단한 가시와 비슷하다고 하여 유래된 구상나무의 제주방언입니다.









04 주민참여전시



2026년 제1차 주민참여전시

《식물이 건네준 비노》

- **기　　간** : 2026. 2. 3.(화) ~ 6. 7.(일)
- **장　　소** : 1층 중앙홀, 살롱 드 네이처(Salon de nature)

전시설명

'비노'는 더러움을 날려 보낸다는 뜻의 '비루'에서 유래한 비누의 순우리말입니다.

비누의 시작과 끝에는 자연의 순환이 담겨 있습니다. 비누는 햇빛과 비를 머금고 땅속 깊은 양분을 끌어올린 식물로부터 시작됩니다. 식물의 씨앗과 열매에서 얻은 기름은 비누의 재료가 되고, 비누는 우리의 일상을 깨끗이 씻겨낸 뒤, 물과 미생물의 작용을 통해 다시 자연의 일부로 돌아갑니다.

비누는 식물이 건네준 재료가 잠시 다른 형태로 우리 삶에 머물다 가는 과정입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그 과정을 이해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05 교육

3월 과학강연

- **교육대상 :** 성인 60명
- **교육내용 :** 도서 저자강연『혁신은 왜 실패하는가』
- **모집일정 :** 2026. 3. 17.(화) 10:00~마감 시
- **교육일정 :** 2026. 3. 27(금) 19:00~21:00
- **교육시간 :** 2시간
- **장　　소 :** 1층 시청각실
- **수 강 료 :** 무료

※ 문의 02-330-8871



4월 박물관투어

- **교육대상 :** 유치부 6세~초등학교 6학년
- **교육내용 :** 전시장 투어 및 학습지 풀이 등
- **모집일정 :** 2026. 3. 13.(금) 10:00~마감 시
- **교육일정 :** 2026. 4. 4.(토)~4. 19.(일)
- **교육시간 :** 120분(유치부 90분)
  [10:00~12:00, 13:00~15:00]
- **장　　소 :** 5교육실 및 전시장
- **수 강 료 :** 16,000원(1인)
  [일반 연간회원 11,000원, 연간 구민회원 10,000원]

※ 문의 02-330-8873



3~6월 APCTP 올해의 과학도서 저자강연(상반기)

- **교육대상 :** 청소년 및 성인 60명
- **모집일정 :** 강연 2주 전 화요일 10:00~마감 시
- **교육내용 및 교육일정 :**

회차	일시	제목	강사
제1강	2026.3.29.(일) 14:00~16:00	와일드	이원영 박사 (극지연구소)
제2강	2026.4.12.(일) 14:00~16:00	갈 수 없지만 알 수 있는	지웅배 박사 (과학커뮤니케이터)
제3강	2026.5.21.(목) 19:00~21:00	엄마 생물학	이은희 박사 (과학도서 작가)
제4강	2026.5.28.(목) 19:00~21:00	모든 계절의 물리학	김기덕 박사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제5강	2026.6.18.(목) 19:00~21:00	빙하 곁에 머물기	신진화 박사 (극지연구소)

- **교육시간 :** 2시간
- **장　　소 :** 1층 시청각실
- **수 강 료 :**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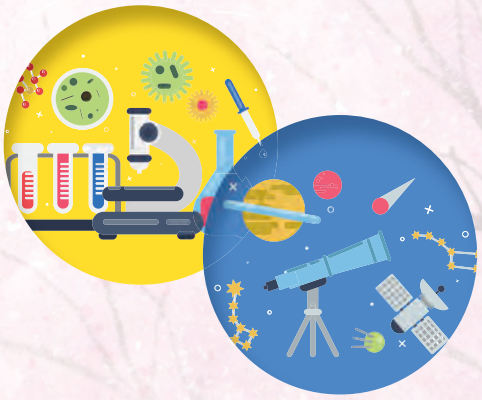
※ 문의 02-330-8871



5월 과학도구 빌려주는 자연사박물관

- **교육대상 :** 초등학생 포함 가족(2~4명/가족)
- **교육내용 :** - 현미경 수업 : 현미경 조작 실습 및 프레파라트 제작
  - 망원경 수업 : 천체관측 기초 및 망원경 조작 실습
- **모집일정 :** 2026. 5. 4.(월) 11:00~마감 시까지
- **교육일정 :** 2026. 5. 16.(토)
- **교육시간 :** 2시간[14:00~16:00, 19:00~21:00]
- **장　　소 :**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세미나실(2층)
- **수 강 료 :** 25,000원/가족

※ 문의 02-330-8863



06 어린이코너

자연의 단서를 찾아라! : 1층 인간과 자연관의 비밀

1. 이것은 기후변화로 생물의 계절 활동, 분포 변화가 뚜렷하여 생태계의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구상나무 등 100종을 선정하여 한반도 생물다양성 분포 변화를 예측하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힌트: 1층 기후변화 코너, (기후변화 생물 00종)

3/3 세계 야생 동식물의 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고 야생 생태계에 대한 중요성을 기억하기 위한 날

정답





2. 이 기체는 지구의 온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인간 활동으로 농도가 증가하며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핵심 온실가스가 되었습니다.

탄소 하나와 산소 둘이 만나 만들어졌으며 탄산음료와 드라이아이스 속에 들어있는 이 기체는 무엇일까요?

힌트: 1층 기후변화 코너

4/22 지구의 날

전국 소등 (불끄기) 행사 등 환경을 지키는 캠페인 실천하며, 지구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기억하고 알리는 날



정답





5/22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

생물다양성 보존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며 참여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지정한 날



정답

3. 이것이 복잡할수록 생태계 안정성이 증가해서 특정 생물이 소멸해도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먹이사슬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서 마치 그물처럼 연결된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힌트: 1층 생태계 코너

기획 및 제작: 김보정, 노예진

정답
1. 기후 변화 생물지표종
2. 이산화탄소
3. 먹이그물

07 박물관 행사

2026 어린이날 기념 그림그리기 대회

5월 어린이날 기념 그림그리기 대회가 자연사박물관에서 열립니다.
박물관의 전시물을 관찰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더해 나만의 작품을 완성해 보세요.
우수작을 선정하여 박물관 1층 아트갤러리에 전시합니다.

- **일　　시** : 2026. 5. 2.(토) 10:00~12:00
- **장　　소** :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전시실(1~3층)
- **대　　상** : 초등학생 1~6학년 및 해당 연령 아동 (선착순 100명)
  부문별 접수 : 초등1-2학년, 3-4학년, 5-6학년
- **신청방법** : 홈페이지 > 소식행사 > 그림그리기 대회에서 신청
- **내　　용** : 박물관 전시물을 관찰하고 자유롭게 그림 작품 완성
- **시　　상** : 서대문자연사박물관장상 시상 및 수상작 아트갤러리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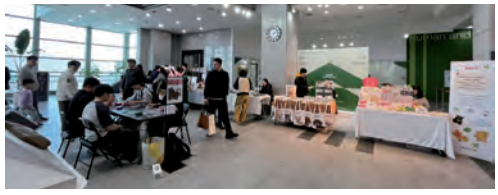
※ 문의 02-330-8856
※ 일정은 박물관 및 기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여자 모집, 상세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추후 홈페이지 공지를 참고하세요.

'기다린 생명, 돌아온 봄' 행사 후기

2월 28일 박물관에서는 경칩과 세계 야생 동식물의 날을 기념하여 '기다린 생명, 돌아온 봄'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도시의 야생동물' 강좌는 최현명 야생동물전문가 진행으로 우리 주변의 야생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넓혔으며, 체험 부스에서는 멸종위기종 교구 조립을 통해 교육적 가치를 더했습니다.
또한 지역 공방 작가들의 감성이 담긴 동식물 굿즈와 친환경 비누와 신비로운 식충식물까지!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간직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3월 주말과학체험

- **주　　제** : 세계 수학의 날 - **수학아 놀자!!**
- **일　　시** : 2026. 3. 14.(토) 10:00~12:00 / 14:00~17:00
- **장　　소** : 자연사박물관 1층 중앙홀
- **대　　상** : 관람객 누구나
- **참 가 비** : 무료

08 새소식

2026년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제휴 기관 할인 안내

DISCOUNT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연간회원 또는 입장권 소지자 혜택

1. 강원도립화목원(강원도 춘천시 화목원길24) : 입장료 50% 할인
2.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경북 상주시 도남2길 137) : 입장료 50% 할인
3. 국립생태원(충남 서천군 마서면 금강로 1210) : 입장료 30% 할인
4.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전남 목포시 고하도안길 997) : 입장료 50% 할인
5. 제주해양동물박물관(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689-21) : 입장료 20% 할인
6. 천리포수목원(충남 태안군 소원면 천리포1길 187) : 입장료 30% 할인
7. 우석헌자연사박물관(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1095) : 입장료 30% 할인
8. 한화아쿠아플라넷(광교/일산) : 입장료 30%, 카페 20%, 기프트샵 15% 할인
9. 한화아쿠아플라넷(여수) : 입장료 20%, 카페 20%, 기프트샵 15% 할인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연간회원 혜택

1. 국립광주과학관(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235) : 입장료 무료
2. 국립세종수목원(세종 수목원로 136) : 입장료 50% 할인
3. 국립한국자생식물원(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비안길 150-3) : 입장료 50% 할인
4. 백두대간수목원(경북 봉화군 춘양면 춘양로 1501) : 입장료 50% 할인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입장권 소지자 혜택

1. 서대문형무소역사관(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251) : 입장료 20% 상호 할인
2. 페인터즈 공연 (공연관 : NH아트홀, 경향아트힐, 강릉아트센터) : 입장료 30% 상호 할인

※ 할인기관 이용 시 매표소에 모바일 연간회원권 또는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입장권을 제시해주세요.
※ 연간회원은 유효기간 내, 입장권은 발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방문 시 할인 적용됩니다.
※ 모든 할인은 중복할인이 되지 않으며 본인 1인만 할인이 가능합니다.

기타 제휴 혜택

1. 국세청 세금 포인트 사용 모바일 쿠폰 발행
- My홈택스 > 세금포인트 > 세금포인트 혜택 > 모바일 쿠폰 발행
- 입장료 2천원 할인, 기념품점 구매 금액별 2~10천원 할인

2. KB금융 전국 공립 박물관·미술관 무료 관람 프로젝트(2026. 6. 30.까지)
- KB스타뱅킹 가입자 박물관 관람료 무료 지원
- 매월 1일 약 1,000매의 무료관람권 발행 (선착순)
- KB스타뱅킹 앱 > 국민지갑 서비스 > 즐거운 여행 > 전국 박물관 무료관람 신청

자연을 담은 북큐레이션 "봄"

올해 서대문자연사박물관 3층 북파크에서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자연을 담은 북큐레이션』을 선보입니다. 3월부터 5월까지 봄 도서를 전시합니다. 봄을 맞이하여 개구리 등 양서류에 관한 도서를 읽고, 상설전시장에서 양서류의 진화와 생태에 대한 정보를 함께 살펴본다면 책과 전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학습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봄날 가족과 함께 자연사박물관을 방문해 전시를 관람하고 북파크에서 봄을 만끽해보세요.





토종씨앗도서관 운영



- **3월 : 화순물외, 4월 : 사과참외, 5월 : 흰들깨**
- **응모기간 :** 매월 1일부터 마지막 주 월요일까지
- **추 첨 일 :**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추첨영상 유튜브 업로드 및 홈페이지 게시)
- **추첨인원 :** 20명
  (씨앗과 함께 재배 및 채종 방법 동봉하여 우편발송)
- **반납방법 :** 씨앗을 심어 기른 후 채종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반납

※ 문의 : 02-330-8858

당첨자 확인

※ 박물관 1층 토종씨앗도서관에 응모해주세요. 매월 20명을 추첨하여 토종씨앗을 대출해드립니다. 씨앗을 잘 키워 채종하여 반납해주시면 "우선 대출권"을 드립니다.

09 관람안내

관람시간

- 3 ~ 10월(하절기) 평일 9:00 ~ 18:00 공휴일 9:00 ~ 19:00
- 11 ~ 2월(동절기) 평일 9:00 ~ 17:00 공휴일 9:00 ~ 18:00

입장 및 매표마감 : 폐관 1시간 전

휴관안내

- 1월1일, 설날당일, 추석당일,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휴관

관람안내

- 개인관람 : 예약 없음, 관람인원 및 시간제한 없음
- 단체관람 : 예약 필요(namu.sdm.go.kr 홈페이지-안내-단체관람안내)
- 전시장 음료반입 금지, 나무홀 취식가능(배달음식 금지)
- 무료관람 대상자 : 홈페이지 참고(namu.sdm.go.kr 홈페이지-안내-관람료)

전시해설안내

- 도슨트 전시해설 : 화 · 수 : 오전11시 / 목 · 금 : 오후2시
  주말 · 공휴일 : 오전 11시, 오후 2시
- 어린이도슨트 전시해설 : 주말, 공휴일, 방학 중 비정기적 운영
  ('홈페이지-관람안내-박물관일정표'에 보시면 어린이도슨트의 활동 시간과 활동코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도슨트 박물관일정표

연간회원제

- 연간회원에 가입하시면 무료입장, 교육프로그램 할인 등 혜택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가입하세요(namu.sdm.go.kr 홈페이지-안내-연간회원).

카카오톡채널안내

- 카카오톡에서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을 추가하고 소식을 받아 보세요.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카카오톡

주차안내

- 주차장이 협소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및 공휴일 박물관 주차장 만차 시 연북중학교 주차장 이용 가능합니다.
  (11시30분 이후)

대중교통안내

- 지하철 신촌역(2호선) 4번 출구 - 마을버스 서대문 03번 환승
- 지하철 홍제역(3호선) 4번 출구 - 버스 7738번 환승
- 버스 110번, 163번, 7017번, 7720번, 7738번
- 서대문 명소 순환 셔틀버스
  (문의 :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02-360-8685)

순환 셔틀버스 시간표

주소 문의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32길 51(연희동)
- 대표전화 : 02-330-8899

서대문자연사박물관
SEODAEMUN MUSEUM OF NATURAL HISTORY